

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핑안생명, 방카슈랑스 채널 강화로 고성장

□ 업계 2위 핑안생명(平安寿险)이 최근 공개한 실적보고서에 따르면, 1~7월까지의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약 35%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핑안생명은 7월까지 828.6억 위안의 수입보험료(누적치)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35% 증가했으며, 7월 한 달간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.5% 증가한 95.2억 위안을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서 매월 20%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임.

2009년 중국 핑안생명 월별 성장률(수입보험료 기준)

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누적
23.0%	69.8%	43.6%	41.1%	21.5%	24.6%	27.5%	35%

자료 :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(www.circ.gov.cn) 통계 자료 참조

- 올해 상반기(1~6월)에만 약 36%의 성장률을 기록한 핑안생명은 업계 1위 중국생명(中国人寿)과 3위 타이바오생명(中国太保寿险)이 같은 기간 각각 5.1%와 9.5%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룸.

□ 업계에서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판매 증가가 최근 핑안생명의 고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
- 중국 생명보험업계는 방카슈랑스가 전통적인 판매채널과 비교해 수익성이 떨어져 효율경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, 금리 하락으로 예금 및 채권 수익률이 크게 낮아져 자산운용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방카슈랑스의 주력 상품인 투자연동형 상품의 판매 비중을 축소하는 등 판매 포트폴리오를 대폭 조정하고 있음.
- 그러나 핑안생명은 올해 상반기 만능형 보험(우리나라의 변액보험에 해당)의 보장이율 및 수익률을 업계 상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방카슈랑스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,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40%가 증가한 162억 위안의 수입보험료를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해 거둬들여 양적 확대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(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홈페이지 · 남방도시보 · 제일재경일보, 8/13)